

Title: Sherman Ong
 Publication: PHOTODOT
 Date: June 2014

NEWS _ WORLD



오순해싱가포르 난양공대 사진과 교수

동남아의 거친 나날들과 비논리적 풍경사진

아트 플로럴 갤러리가 소개하는 설먼 웅

Sherman Ong, Moon-Spurious Landscapes, Courtesy the artist and Art Plural Gallery



Sherman Ong, Moon-Spurious Landscapes, Courtesy the artist and Art Plural Gallery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한 아트 플로럴 갤러리(Art Plural Gallery)는 스위스 딜러가 운영하는 곳으로, 4개 층 건물 전체를 갤러리로 운영하고 있다. 페인팅, 조소, 사진 등 컨템퍼러리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이곳의 3층 갤러리는 신진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신진 작가들에게 세계 미술시장에 등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지난 5월31일까지 사진과 영상을 병행하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싱가포르 작가 설먼 웅(Sherman Ong, 1971~)의 개인전이 열렸다.

설먼은 아트 플로럴 갤러리의 개인전에서 두 가지 시리즈를 선보였다. 2005년 베트남 하노이의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머무르며 작업한 '몬순'(Monsoon) 시리즈와 2010년부터 싱가포르, 브라질,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에서 작업한 '비논리적 풍경'(Spurious Landscapes) 시리즈다. 설먼의 초기 사진작품에서는 몬순, 가뭄, 홍수 등 거칠고 후업지근한 동남아의 기후가 느껴진다. 매써 기고를 부리며 어렵게 만든 작업이 아닌 꾸밈없는 길거리 모습이 대부분이며, 마구 쏟아지는 우박을 피해 숨을 곳을 찾기보다 길거리에서 그대로 삶을 지속하는 동남아인들의 거친 나날들이 표현되었다. 갤러리의 전시 방법도 특이하다. 작가가 달리는 변에서 촬영한 풍경의 실재감이 돋보이도록 8~10장의 사진을 간격 없이 붙여서 전시했다. '몬순' 시리즈는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담은 초기 작업과 연장 선상에 있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된 풍경을 보여주는 '비논리적 풍경'은 다소 해석이 필요한 시리즈다. 스페인의 척박한 대지를 배경으로 뱀나체의 여성이

돌판 한가운데에서 햇볕에 널어놓은 빨래처럼 지붕에 걸려 있다. 또 베트남의 번잡한 시내풍경의 한편에서는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마구 뒤엉켜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사현장 인부들이 철재물품을 운반하는 듯하다. 각각의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나 언뜻 연관 없어 보이는 두 이미지를 함께 붙여놓은 이유는 뭘까? 설먼은 작가 서문에서 척박한 환경을 떠나기보다 자연기후에 적응하고 견뎌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했다고 적었다. 작가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비논리적 모순으로 바라보며,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감정적 순간을 풍경사진으로 표현한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설먼 웅의 가족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두 국적 중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을 선택해 남았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말레이시아 중국인들은 이슬람문화의 영향이 강한 말레이시아의 공공교육 대신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종교적인 색채와 무관한 싱가포르가 이들의 가장 선호하는 유학지이다. 설먼 역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싱가포르로 건너왔다. 이런 성장 과정 탓에 중국어, 영어,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설먼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사진을 접했다. 10살 때 아버지에게 생일선물로 받은 카메라와 영화관 영상기사였던 할아버지를 따라 일찍부터 영화관을 출입하면서 사진과 영상은 그에게 익숙한 매체였다. 사진의 예술성에 매료된 그는 법대 졸업 후 다시 영상학교에 진학했고, 그 뒤 방송국에서 일하며 촬영과 편집 등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서서히 개인작업을 시작해 이제는 인정받는 동남아시아 작가로 성장했다. ●